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서울·경기 대형 마트 활꽃계 할인 행사

부안군은 지난 28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울, 경기 대형마트(엠펙스트)에서 부안 청정바다에 갓 잡은 활꽃계 특별한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시는 꽃계 금어기가 지난 8월 20일 이후 부안 청정서해바다에서 어업인들이 직접 잡은 활꽃계(톱밥 꽃계)를 서울경기 (주)엠펙스트 5개지점(목동, 구로, 천호, 평택, 부평점)에 1일 500~900kg을 당일 배송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싱싱한 우리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상품으로 판매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국민적 불안감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행사 참가

정읍시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행사에 참가해 나흘간 정읍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시는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정읍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우수 특산품으로 구성된 기부 답례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하고 현장에서 정읍시 SNS 구독 이벤트와 함께 정읍 생화차 시음 행사를 병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돕고 이를 통해 지역 재정 확충의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됐다. 특히 전국 각지의 우수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푸드 박람회와 연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해 전북, 강원, 경기, 충남, 제주 등 지자체 32곳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저탄소 청춘한우 홍콩 첫 수출

고창군, 수출 물량 16두 지육량 7톤... 농식품부 저탄소 한우 인증받아

고창군이 28일 지역 청춘한우 농가에서 생산된 '고창 저탄소 청춘한우'를 홍콩으로 첫 수출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수출 물량은 16두로 지육량은 7톤 정도다. 이번 홍콩 수출은 지난해 말 롯데백화점 30여 지점에 첫 입점 이후 저탄소 청춘한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출 기념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김시중 고창부안축협장, 류기상 한우협회장, 이문구 농협고창군지부장, 이화교 전북대학교 청춘한우 농가 등이 참석했다.



저탄소 한우는 200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서 생산된다.

저탄소 청춘한우 농가는 관내 청년농을 중심으로 사업단을 조직해 한우 유전체 검사를 지속 시행하고 개량과 정을 거친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히 평균 사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4개월 이하로 6개월 이상 단축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동시에 최근 농가 경영에 부담되는 사료비도 약 18%가량 절감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농식품부에서 저탄소 한우 농가로 4호가 인증받았다.

청춘한우는 우수한 암소 선발을 통해 출하량도 단축에도 불구하고, 1+등급 이상 고급육이 70% 이상으로 등급은 더 높아지는 성과를 가져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저탄소 청춘한우의 홍콩 수출을 통하여 저탄소 한우의 원활한 판로 확보와 더불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쌀단백질 함유 만두피 제조 특허등록

고창 베리&바이오피드연구소, 관내 업체와 공동연구 결과 결실

고창 (재)베리&바이오피드연구소(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이하 연구소)는 2년간 심사 기간을 통해 특허청으로부터 쌀단백질이 함유된 만두피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미래형 혁신식품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고창군 부안면에 위치한 냉동도시락 제조 업체인 (주)임지군만두(대표 미영모, 이문화)와 순천향대학교와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임지군만두는 쌀을 씻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정수에 다량의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하천에 녹조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쌀 세정수에 함유된 영양성분을 소재로 활용하고자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의뢰했다.

연구소에서는 쌀 세정수에서 전분과 단백질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분리한 쌀 단백질을 만두피에 첨가하여 군만두의 식감을 더 바삭하게 개선 시켰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한 이 기술은 임지식품에서 생산·판매하는 군만두 제품 4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등록을 계기로 연구소와 관내 기업에서 공동 개발한 우수한 기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재)베리&바이오피드연구소 이사장(심덕섭 고창군수)은 "고창군에서는 청정 이미지와 품격있는 농산물의 다양한 소재 개발로 대한민국의 식품산업에 이끄는 핵심도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농·생명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도민체전 출전 선수단 출정식

선수·관계자 350여 명 모여 승리 다짐... 체전은 내달 1~3일 김제시

'제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정읍시 선수단의 출정식이 지난 28일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출정식에는 이화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윤 시의회의장과 시의원, 최규희 교육장, 최규철 정읍시체육회장 및 각종목별 선수단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필승을 다짐했다.

행사는 선전을 기원하는 정읍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체육회

단기 수여, 출정식 및 격려사, 대표 선수단 필승결의문 낭독 및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화수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회 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무엇보다 참가 선수 모두 다치지 않고 최선의 기량을 펼쳐 개인과 정읍시의 명예를 드높여 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우리 정읍시는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체육트레이닝센터, 스포츠타운을 건립 중에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한편, 제6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읍시는 36개 종목에 807명의 선수(선수 632명, 임원 175명)가 참가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청 민원과 직원들은 28일 청렴의식 고취와 더불어 친절 문화 확산을 위한 자체 청렴정책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 부안군청 민원과, 자체 청렴정책·친절교육 실시

부안군청 민원과 직원들은 28일 청렴의식 고취와 더불어 친절 문화 확산을 위한 자체 청렴정책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 이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대내외 반부패·청렴 문화 인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또한 친절한 민원응대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상황별 민원 응대 매뉴얼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 방안을 제시하며 친절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친절역량 강화를 통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서울 명동에 지역 홍보부스 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거점'

고창군이 서울 한복판 명동에 지역 홍보부스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거점으로 활용한다.

28일 고창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관광재단과 서울-지역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명동관광홍보센터내 고창군 홍보존을 운영을 시작했다.

일부 공간을 홍보영상, 관광안내서 등을 비치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계 유산도시 고창을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창군은 낯설겠지만 7개의 세계유산도 내세운 홍보존으로 세계 어디서든 보기가 힘든 자연유산을 홍보로 여행자의 발길을 고창으로 향하게 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다

재단은 센터 홍보존 이외에도 서울관광플라자 내 여행자 카페와 서울특별시관광협회가 운영 중인 8개의 서울시 관광안내소에 홍보영상 송출과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서울 여러 지역에서 고창에 대한 알찬 여행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과 서울관광재단은 올해 1월 MOU체결로 서울과 지역의 상생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왔다. 그 결과 지난 6월에는 서울 지역 여행사 실무진들의 고창 팸투어를 진행하여 여행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된 협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관광정보에 취약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서울관광재단의 도움과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